

# 구약논찬

제17권 3호(통권 41집) 2011년 9월 30일

정 중호(계명대) 주전 7세기 블레셋과 유다의 광역 경제권 ..... 180

이 논문은 주전 7세기 블레셋과 유다가 앗수르 제국 국제무역망의 한 부분으로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 의하면 앗수르는 국제무역센터인 카루(*karu*)를 설치하고 앗수르 관리들인 케푸(*qepu*)를 상주시켰다. 특히 에그론은 감람유 생산기지로, 그리고 아스켈론은 해상무역과 육로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네게브를 개발한 유다는 배후지역으로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였다.

**Chong, Joong Ho** A wide-area economic bloc of Philistine and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 .... 180

# 주전 7세기 블레셋과 유다의 광역 경제권

정 중호 | 계명대

## 1. 서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기보다 적대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삼손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묘사하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침략자요 원수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분열 이후 블레셋과 유다와의 관계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블레셋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면이 특이하고 나타나더라도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온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으며, 특히 주전 8-7세기에는 대부분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sup>1)</sup>

후기에언서 가운데 블레셋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한 하이크(R. D. Haak)는 결론짓기를 주전 8세기에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갈등이 미미하였는데 8세기 말에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하였다.<sup>2)</sup> 즉, 주전 8세기말 히스기야가 영토확장을

1) S. Gitin, "Tel Miqne-Ekron: A Type Site for the Inner Coastal Plain in the Iron Age II Period," in S. Gitin and W. G. Dever eds., *Recent Excavations in Israel: Studies in Iron Age Archaeology* (Annual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49, 1989), 48쪽.

2) Robert. D. Haak, "The Philistines in the Prophetic Texts," in Ernest S. Frerichs, Jodi Magness, and Seymour Gitin eds., *Hesed ve-emet: Studies in Honor of Ernest S. Frerichs*,

도모하여 블레셋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헤립이 히스기야가 점령한 블레셋 지역을 돌려준 이후 블레셋과 유다는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계기는 주전 7세기 말 바벨론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유다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가장 인접해 있으며 바다로 통하는 길이기에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로인 해안도로(via maris)도 블레셋을 통과하고 있기에 유다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블레셋을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다. 만약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유다와 블레셋은 마치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특히 주전 8세기 후반부터 앗수르가 제국의 국제무역망을 강화시키면서 지중해 연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점을 감안한다면 유다와 블레셋 관계를 파악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3)</sup> 스테거(L. E. Stager)는 청동기 초기와 중기에도 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 사이에 이러한 교역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그 배후에는 해상무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4)</sup> 특히 주전 7세기에는 블레셋과 페니키아 지역과의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시대인 만큼 블레셋 항구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유다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블레셋과 유다가 비교적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던 주전 7세기에 블레셋과 유다가 앗수르 제국의 국제무역망의 한 부분으로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 2. 앗수르의 국제교역망의 한 부분으로서의 블레셋과 유다

주전 9세기 중엽부터 지중해 연안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한 앗수르의 원정은

---

(Atlanta : Scholars Pr, 1998), 46-47쪽.

3)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Judah, Philistia, and the Mediterranean World: Reconstructing the Economic System of the Seventh Century B.C.E.," *BASOR* 338(2005), 71-92쪽.

4) L. E. Stager, "Port Power in the Early and the Middle Bronze Age: The Organization of Maritime Trade and Hinterland Production," in S. R. Wolff ed., *Studies in the Archaeology of Israel and Neighboring Lands in Memory of Douglas L. Esse*, Studies in Ancient Oriental Civilization 59; ASOR Books 5. (Chicago: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1), 625쪽.

주로 약탈전쟁이었으며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봉신관계를 수립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지중해 연안의 국제무역권에 대한 앗수르 제국의 본격적인 진출은 티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부터였는데 먼저 페니키아 지역의 국제무역권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다.<sup>5)</sup>

그리고 티글랏빌레셀은 이집트 국경 부근, 아마도 가자 지역에, 국제무역센터인 “앗수르 카루(Karu)”를 세웠다.<sup>6)</sup> 앗수르의 의도는 이집트의 북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앗수르 제국의 국제무역망을 확장하려는 것이었다.<sup>7)</sup> 가자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아랍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또한 주변의 블레셋 항구들과 연결시켜 해상무역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국제무역의 요충지였다.

사르곤 2세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 앗수르 군대와 관리들을 상주시켰으며 페니키아와 블레셋에도 관리를 임명하여 상주시켰다. 이 앗수르 관리들을 케푸(qepu)라 불렀으며 앗수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을 치밀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sup>8)</sup>

그런데 산헤립 시대(주전 704-681)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지중해 연안에 대한 앗수르의 통제력이 다소 약화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집트는, 정확히 말하면 이디오피아 태생인 제25왕조의 타하르카는 레비논의 목재를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었다.<sup>9)</sup> 이러한 사실은 곧 페니키아에 대한 앗수르의 통제가 약화되었다는 증거이며 앗수르가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와 블레셋이 동참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반앗수르 반란이 일어났다. 앗수르 제국을 정미한 산헤립은 주전 701년 서부원

5) ND 2715; H. W. Saggs, “The Nimrud Letters, 1952-Part II: Relations with the West,” *Iraq* 17 (1955), 127-128, 149-150쪽.

6) 티글랏빌레셀의 “앗수르 카루”에 대한 언급은 ND4301+4305문헌의 13-16줄에 기록되어 있다; D. J. Wiseman, “A Fragmentary Inscription of Tiglath-pileser III from Nimrud,” *Iraq* 18 (1956), 117-129쪽.

7) Moshe Elat,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Neo-Assyrian Empire with Egypt,” *JAOs* 98 (1978), 27쪽.

8) N. Na'aman, “The Brook of Egypt and Assyrian Policy on the Board of Egypt,” *Tel Aviv* 6 (1979), 84쪽.

9) 정 중호/최 가수, “앗수르와 이집트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제4집(1998) 199-200쪽.

정을 단행하여 아스겔론을 정복하여 시드카를 폐위시키고 샤를루다리(Shamuludari)를 왕위에 앉혔다. 이 때 아스돗은 미리 머리숙여 복종의 예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산헤립은 에그론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sup>10)</sup> 그러나 산헤립은 바벨론의 반란으로 인해 급히 회군해야 했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였고 만족할만한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sup>11)</sup>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산헤립의 서부원정은 블레셋과 유다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헤립은 유다와 블레셋의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수 많은 포로들과 물자들을 약탈하였다. 산헤립은 이 원정에서 200,150명의 포로를 잡아왔다고 자랑하기까지 하였다.<sup>12)</sup> 그리고 블레셋과 유다 지역을 앗수르 제국의 복안대로 재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반앗수르 반란을 충동질하는 이집트의 복상을 차단시킬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블레셋과 유다를 안정시켰다. 즉, 블레셋과 유다의 세력균형을 위해 산헤립은 히스기아가 장악한 블레셋 영토를 다시 아스돗, 에그론, 가자, 아스겔론 등에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블레셋 도시들 가운데도 서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영토를 재조정하였다.<sup>13)</sup>

결국 주전 7세기 앗수르는 주전 8세기만큼 지중해연안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앗수르의 국제무역망은 활발히 움직였고 앗수르의 세력이 블레셋과 유다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프라트 북쪽 아르콘 강 입구에 있는 텔 쿨다디(Tell Qudadi)는 앗수르 제국의 국제무역망 거점이었는데 주전 8세기 후반부와 7세기 전반에 건설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이 거점은 이집트와 페니키아 사이에 위치하여 해상과 육상무역을 관할하는 요새였다.

주전 7세기 앗수르는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앗수르에서 지도자를 양성하여 봉신국의 통치자로 임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에살하돈은 아랍 여왕 타부아(Tabua)와 아스겔론 왕 미틴티(Mitinti)를 앗수르에서 교육시켜

10) 정 중호, “산헤립의 팔레스틴 원정과 히스기야,” 『신학사상』 21 (1993 봄), 7-20쪽.  
 11) Nadab Na'aman, “Sennacherib's 'Letter to God' on His Campaign to Judah,” *BASOR* 214 (1974), 25-39쪽.  
 12) *ANET*, 288쪽.  
 13) *ARAB II*, §312.  
 14) A. Fantalkin, “Re-discovering the Iron Age Fortress at Tell Qudadi in the Context of Neo-Assyrian Imperialistic Policies,”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41, no. 3 (2009), 199-201쪽.

임명하였다.<sup>15)</sup> 이러한 방식은 역사상 자주 활용되었던 방식으로 친앗수르 정권을 수립하여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치밀한 장기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앗수르가 지중해 연안을 통치할 때 경제적 이득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는 것은 반란을 일으킨 통치자를 제거하지 않고 재임명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전 734년 반앗수르 반란을 일으킨 가자의 하누(Hanun)를 티글랏빌레셀 3세는 다시 가자의 왕으로 임명하였다.<sup>17)</sup> 아스돗의 왕 아마니의 경우도 주전 712년 반앗수르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르곤 2세는 아마니를 다시 아스돗의 왕으로 임명하였다.<sup>18)</sup>

앗수르 전성시기에 아스켈론은 여러번 앗수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앗수르는 아스켈론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아스켈론이 반역을 했지만 앗수르 통치 하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sup>19)</sup> 그리고 아스켈론이 앗수르의 군대 주둔지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sup>20)</sup>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요충지여서 앗수르가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스켈론이 반역을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파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sup>21)</sup> 앗수르는 지중해 연안의 국제 무역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다양하게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블레셋과 유다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켰다.

---

15) ANET, 291-292쪽.

16) H. Tadmor, "Philista Under Assyrian Rule," BA 29 (1966), 98쪽.

17) 윗글, 88쪽.

18) 아마니를 다시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힘들지만, 주전 712년 이후 아스돗의 왕으로 거명된 다른 왕이 없었고 주전 701년에 미틴티(Mitinti)가 아스돗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니를 재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Daniel M. Master, "Trade and politics: Ashkelon's balancing act in the seventh century B.C.E.," BASOR 330 (2003), 60쪽.

20) B. Otzen, "Israel under the Assyrians," in M. T. Larsen ed., *Power and Propaganda: A Symposium on Ancient Empires* (Dopenhagen: Akademisk, 1979), 256쪽.

21) Moshe Elat, 윗글, 33-34쪽.

### 3. 블레셋과 유다의 광역 경제권 실태

#### 1) 아스켈론

주전 7세기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블레셋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주해온 숫자도 상당하였다는 사실이다.<sup>22)</sup> 아스켈론을 발굴하는 가운데 유다의 곡물인 밀이 발견되었다.<sup>23)</sup> 이것은 아스켈론이 다량의 곡식을 유다에서 수입했다는 증거이다.

또한 아스켈론은 중요한 어업기지도 하였다.<sup>24)</sup>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선뼈와 조개 등 해산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sup>25)</sup>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생선뼈와 조개들을 분석한 결과 생선과 조개 등 해산물을 일상적으로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산물 유통이 활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6)</sup> 해산물은 매일 매일 먹는 음식이며 반복해서 거래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아스켈론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들과 유다가 서로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교역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sup>27)</sup>

유다와 블레셋이 함께 공생하고 있는 경제권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스켈론은 이 경제권 가운데 가장 큰 무역항구이며 도시 자체도 거대

22)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윗글, 72쪽.

23) Ehud Weiss and Mordechai E. Kislev, "Plant remains as indicators for economic activity: a case study from Iron Age Ashkelon,"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1 (2004) 1-13쪽.

24) P. J. King and L. E.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122쪽.

25) H. Lernau and O. Lernau, "Fish Remains," in A. de Groot and D. T. Ariel eds.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1978-1985*, Vol. 3: *Stratigraphical, Environmental, and Other Reports*, Qedem 33.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2), 136쪽; Oded Borowski, *Every living thing: daily use of animals in ancient Israel* (Walnut Creek, CA: AltaMira, 1998), 172-176쪽.

26) H. K. Mienis, "Molluscs," in A. de Groot and D. T. Ariel eds.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1978-1985*, Vol. 3: *Stratigraphical, Environmental, and Other Reports*, Qedem 33.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2), 129쪽; H. Lernau and O. Lernau, 윗글, 136쪽.

27) 참고로 국제무역의 증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유다의 가정집에서 저울추가 많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유다 지역의 상거래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Hayah Katz, "Commercial Activity in kingdoms of Judah and Israel," *Tel Aviv* vol. 31, no. 2 (2004) 268-277쪽.

도시였다. 아스켈론의 인구는 주전 7세기경 약 10,000-12,000명 정도였으며 60헥타르의 큰 도시였다.<sup>28)</sup>

아스켈론의 국제무역 상황을 알기위해 1988년부터 주전 7세기 중 가운데 186세라믹 표본을 암석분석(Petrographic analysis) 기법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 당시 경제의 해상활동과 육상활동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아스켈론을 비롯한 블레셋 지역 암석이 77%, 쉘렐라 지역이 13%, 페니키아 지역이 5%, 네게브 지역이 3%, 그리스 지역이 1%, 사이프러스/북 시리아 지역이 1%, 이집트 지역이 0%로 나타났다.<sup>29)</sup> 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페니키아와 그리스 그리고 사이프러스 지역과 해상무역을 활발히 했다는 점이다. 또한 에그론의 왕의 이름인 '아기스'와 아스돗의 왕위 찬탈자인 '아마나'라는 이름이 헬라이어 이름들이라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블레셋과 그리스와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페니키아의 것으로 확인된 세라믹 종류는 주로 운반과 저장용 용기였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페니키아와 아스켈론과의 교역이 아주 왕성했다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스페인 연안에서 침몰된 페니키아 선박을 1993년에 발굴하였는데 이 선박은 주전 7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조사한 결과 아스켈론과 에그론의 저장용기가 다량 발견되었다.<sup>32)</sup> 페니키아 무역상들은 아스켈론과 에그론의 포도주를 수입해서 지중해 여러 나라들에 수출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아스켈론 항구에서 국제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상인들은 주로 페니키아 상인들이었는데 당시 페니키아는 지중해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해상무역의 강자였으며 무역 판도를 넓히고 있었다.<sup>33)</sup> 유다의 경우는 아스켈론 항구를 통해 페니키아 무역상들과 거래할 수 있었다. 때로는 유다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먼 나라로 무역을 하는 예도 있었다.<sup>34)</sup>

28) L. E. Stager, "Ashkelon and the Archaeology of Destruction: Kislev 604 BCE," *Eretz-Israel* 25 (1996), 62쪽.

29) Daniel M. Master, *윗글*, 52쪽.

30) S. Gitin, T. Dothan, and J. Naveh, "A Royal Dedicatory Inscription from Ekron," *IEJ* 47 (1997), 11쪽; *ANET*, 285-286쪽.

31) Daniel M. Master, *윗글*, 58쪽.

32) *윗글*, 59쪽.

33)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5집 (1998)』, 28-29쪽.

34) C. H. J. De Geus, "The Material Culture of Phoenicia and Israel," *Phoenicia and The*

해상무역을 하려면 배를 건조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건조 비용이 비싸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에 의지해서 싼 비용으로 대량상품을 원거리 항해해서 무역할 수 있었다. 두로와 시돈은 일찍부터 선박건조 기술과 선박 항해 기술을 발달시켜 지중해의 해상무역권을 주도하였다. 블레셋과 유다의 경제권에 기본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주체도 바로 페니키아 무역상들이었다.<sup>35)</sup>

페니키아 상인들의 무역품목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하는 것은 은(silver)이었다.<sup>36)</sup> 두로와 시돈 등 페니키아 무역 상인들은 스페인 지역의 광산에서 은을 수입하였는데 은은 앗수르 제국에서 화폐로 유통되기도 하였다.<sup>37)</sup> 또한 에그론을 비롯한 블레셋 도시에서 은이 다량 발굴되었는데 이러한 발굴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과 두로와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항구를 통해 유다로 은이 들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헤립의 침공을 받은 유다 왕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800탈렌트의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sup>38)</sup> 유다에는 은 광산이 없었다.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이러한 막대한 은은 어디서 수입되었는가? 그 해답은 페니키아와 블레셋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무역망에서 찾을 수 있다.

아스겔론의 경우, 무역 상품 가운데 단연 으뜸을 차지하고 있었던 물품은 포도주였다. 아스겔론 발굴을 통해 포도주 생산 시설이 다량 분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9)</sup> 당시에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인 포도주를 집중 생산하고 교역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어업활동도 활발하여 생선을 내륙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sup>40)</sup>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스겔론의 세라믹 표본, 즉, 옹기들을 암석분석

*Bible* (Leuven: Uitgeverij Peeters, 1991), 15-16쪽.

35) Daniel M. Master, *윳글*, 52쪽.

36) M. E. Aubet, *The Phoenicians and the West: Politics, Colonies and Trade*. Trans. M. Turton, (Cambridge: Cambridge Univ., 1993), 219, 238-241쪽.

37) J. N. Postgate,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Assyrian Empire," in Mogens Trolle Larsen ed. *Power and propaganda: a symposium on ancient empires* (Akademisk Forlag : [eksp. DBK], 1979), 218쪽.

38) *Oriental Institute Prism in ANET*, 288쪽.

39) L. E. Stager, *윳글*, 62-65쪽.

40) P. J. King and L. E. Stager,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122쪽.

(Petrographic analysis) 기법으로 연구한 결과 므깃도, 이스라엘 계곡,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간고지대의 암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아스겔론과 가까운 쉘렐라 지역과의 교역만 나타나고 잇수르 통치지역과의 육로 교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간고지대의 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스겔론과 산간고지대와의 상품교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간지역을 이동하는 육로 교역은 사람이 등짐을 지고, 혹은 가축의 등에 짐을 싣고, 혹은 우마차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물론 산간고지대의 저장용 용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곡식일 경우 자루에 담아 운반할 수도 있었다. 자루는 나귀들이 운반할 때 주로 사용되며 용기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 운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점도 자루를 사용하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sup>41)</sup>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직접 아스겔론까지 왕래하지 않았더라도 쉘렐라의 라기스, 그리고 게셀, 에그론 등이 중간 기지가 되어 상품을 상호유통시킬 수 있었다.<sup>42)</sup> 그리고 석아 없애지는 용기나 상품들은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교역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한다. 특히 산간고지에서 발굴되는 그리스 질그릇이나, 레바논의 목재, 지중해 식품(생선뼈) 등을 통해서도 아스겔론과 산간고지대의 교역활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43)</sup>

이러한 교역을 통해 아스겔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양한 상품들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부유층들이 시리아에서 수입한 목재와 가구, 홍해에서 온 장식용 조개, 그리스 혹은 사이프러스에서 수입한 포도주 용기,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수입한 생선 등이 확인되었다.<sup>44)</sup> 이 가운데 목재의 경우 예루살렘의 목재 가운데 8%가 수입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5)</sup> 그리고 유디의 중요한 수출품은 곡물이었

41)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위글*, 84쪽.

42) Daniel M. Master, *위글*, 56-60쪽.

43) E. Stern,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Vol. 2: The Assyrian,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732-.332 b.c.e.)*. (New York: Doubleday, 2001), 214, 216쪽.

44) G. Auld and M. Steiner, *Jerusalem I: From the Bronze Age to the Maccabees*. (Cambridge: Lutterworth, 1996), 63-64쪽.

45) N. Liphshitz, "Dendroarchaeological Studies 150: The Ophel(Jerusalem), 1986," in E. Mazar and B. Mazar ed. *Excavations in the South of the Temple Mount: The Ophel of Biblical Jerusalem*, Qedem 29. (Institute of Archaeology,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89), 142-143쪽.

는데 주로 아스겔론으로 수출되었다.<sup>46)</sup>

## 2) 에그론

에그론은 주전 8세기에 크게 확장되었고, 주전 7세기에는 30헥타아르 넓이로 팽창하였으며 앗수르의 국제교역망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47)</sup> 에그론은 항구 도시인 아스겔론과 내륙도시들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었기에 주로 감람유가 집합되는 도시였고 감람유를 가공하는 기지였다. 에그론을 발굴한 결과 115 곳에서 감람유생산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48)</sup> 아마도 주전 7세기 경에는 에그론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감람유가 연간 1,000톤 규모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규모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감람유 생산기지였다. 이러한 생산량은 48,000 용기에 저장할 양이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감람유를 생산하려면 12,000 에이커의 농장이 필요하고 적어도 2,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9)</sup> 도단과 깃틴(T. Dothan and S. Gitin)은 이 정도의 생산량은 이스라엘 지역 전체의 20%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sup>50)</sup>

원래 감람나무가 많이 자란 곳은 중앙산지 지역이었으며 지중해 연안을 바라보는 산기슭에 자리잡은 여러 지역에서 감람나무가 재배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감람유는 게셀, 벳세미스, 텔 베이트 미르שמ 등 쉘펠라 지역에 집합되어 유통되었다.<sup>51)</sup> 그런데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으로(주전 701년) 쉘펠라 지역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감람유는 국제무역로인 ‘해안도로’와 가까운 에그론에 집합되었다. 이로 인해 주전 7세기에는 에그론이 거대한 감람유 생산기지가 된 것이다.<sup>52)</sup>

46) I. Finkelstein, “The Archaeology of the Days of Manasseh,” in M. D. Coogan, J. C. Exum, and L. E. Srajer eds., *Scripture and Other Artifac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78쪽.

47) I. Finkelstein은 주전 7세기에 깃이 에그론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I. Finkelstein, “The Philistines in the Bible: A Late-Monarchic Perspective,” *JSOT* 27, no. 2 (2002), 140쪽.

48)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빛글*, 73쪽.

49) D. Eitam and A. Shomroni, “Research on the Oil Industry during the Iron Age at Tel Migne: A Preliminary Report,” in M. Heltzer and D. Eitam eds., *Olive Oil in Antiquity* (Haifa: University of Haifa, 1987) 37-56쪽.

50) T. Dothan and S. Gitin, “Ekron,” *ABD*, vol. 2, 420쪽.

51) S. Gitin, *빛글*, 48-49쪽.

52) S. Gitin, “The Neo-Assyrian Empire and Its Western Periphery: The Levant, with a Focus on Philistine Ekron,” in S. Parpola and R. M. Whiting eds., *Assyria 1995: Proceedings*

에그론의 감람유는 주로 항구인 아스겔론으로 운반되어 수출되었는데 잇수르에 조공으로 바쳐지기도 하였다.<sup>53)</sup>

에그론의 감람유 생산 공정은 일년 중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8개월 동안 다른 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에그론의 감람유 생산시설에서 베틀 추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8개월의 기간 동안 옷감을 짜는 일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54)</sup>

### 3) 유다

주전 7세기 국제무역 판도에서 두로와 블레셋은 유다에 비해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다는 주로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였는데 곡물과 포도주와 감람유를 주로 수출하였다.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신 8: 8)고 표현할 정도로 유다 지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었다. 유다 왕 웃시야가 농업에 특별한 힘을 기울인 것도(대하 26: 10) 농산물이 주요 수출 품목이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곡물이 잇수르 시장까지 진출하였는데 이것은 잇수르 시장에서 유다의 단위로 곡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sup>55)</sup>

유다와 두로와의 교역을 살펴보면, 백향목과 잣나무 등 목재와(왕상 5: 10) 금(왕상 9: 14) 등이 두로에서 수출한 것이었고 유다는 보리와 밀 그리고 감람유(왕상 5: 11) 등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였다(겔 27: 17; 스 3: 7).<sup>56)</sup>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을 중심으로 포도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교역은 육상으로도 가능했지만 주전 7세기의 경우 블레셋 항구도시를 통한 해상과 육상의 교역이 주를 이루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의 변화이다. 예루살렘이 크게 확장된 것이다.

---

*of the 10th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Neo-Assyrian Text Corpus Project, September 7-11, 1995*,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1997), 94쪽.

53) I. Finkelstein, *윗글*(1994), 178-180쪽.

54) S. Gitin, *윗글*(1997), 89-90쪽.

55) ADD 148, quoted in M. Elat, “The Monarchy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in Ancient Israel,” in Edward Lipinski ed. *State and Temple Economy in the Ancient Near East*, (Louvain: Departement Orientalistiek, 1979), 538쪽.

56) S. D. Waterhouse, “The Land of Milk and Honey,”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 (1963) 161-166쪽; F. C. Fensham, “An Ancient Tradition of the Fertility of Palestine,” *PEQ* 98 (1966) 166-168쪽.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갑자기 확대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시대부터 서서히 확대되었다. 다만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피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산헤립의 침공으로 인구가 또다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각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어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감소하였다.<sup>57)</sup>

주전 7세기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점은, 즉, 므낫세 왕 시대에 유다 남부 네게브지역이 집중적으로 개간되면서 곡물생산이 급격히 증대되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예루살렘 동쪽 광야 지역도 곡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주전 7세기에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광야가 개간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 동쪽 광야 지역이 개간된 이유에 대해서 스테거(L. E. Stager)는 사해 지역에 있는 소금이라든가 역청같은 자연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정착민이 이 지역에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sup>58)</sup> 그러나 이 주장은 땅이 개간되고 곡물생산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 주장은 사해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 네게브 지역의 인구증가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설명은 유다 자체의 곡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켈슈타인(I. Finkelstein)의 설명이다. 즉, 주전 701년 산헤립의 침공으로 쉘펠라 지역을 블레셋에 양도하게 되어 곡물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른 개간지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sup>59)</sup> 에반스와 알스트룡과 할펀(C. D. Evans, G. W. Ahlström, B. Halpern) 등 여러 학자들이 므낫세가 앗수르의 충성스러운 봉신이었기에 앗수르의 허락을 받아 잃어버린 쉘펠라를 도로 찾았을 것이라 추측했지만 핑켈슈타인(I. Finkelstein)은 므낫세가 쉘펠라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sup>60)</sup> 그러나 산헤립의 침공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57) N. Na'aman, "When and How Did Jerusalem Become a Great City? The Rise of Jerusalem as Judah's Premier City in the Eighth-Seventh Centuries B.C.E.," *BASOR* 347 (2007), 47-48쪽

58) L. E. Stager, "Farming in the Judean Desert during the Iron Age," *BASOR* 221 (1976), 145-158쪽.

59) I. Finkelstein, *윗글*(1994), 169-187쪽.

60) *윗글*, 180-181쪽.

감안하면 유다 지역의 곡물부족으로 네게브 지역을 개간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록 산헤립의 원정이 승리했음을 과장해서 기록한 문헌이기는 하지만 산헤립이 서부원정에서 200,15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면 유다의 인구는 상당히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므낫세 시대에 유다에 곡물부족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sup>61)</sup>

보다 더 설득력있는 이유를 아스겔론에 곡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아스겔론 주위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포도생산 지역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아스겔론 주민들은 곡물을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sup>62)</sup>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하는 네게브가 곡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아스겔론에서 곡물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수출할 수 있는 경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sup>63)</sup> 핑켈슈타인(I. Finkelstein)은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하기를 므낫세가 브엘세바 계곡에 행정력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64)</sup> 네게브 지역의 곡물생산이 증대되고 인구가 증가할 때 행정력이 강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인구와 행정력이 증대되면서 이 지역이 신속하게 곡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핑켈슈타인(I. Finkelstein)은 추정하기를 브엘세바 지역에서 적어도 연간 5,000톤의 곡물이 생산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sup>65)</sup> 또한 헤르쾅그(Z. Herzog)는 풍작일 경우 5,250톤까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약 17,500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sup>66)</sup>

그리고 자연조건이 열악한 사마리아 기슭 지역도 곡물 생산 기지가 되었다. 주전 8세기 말과 7세기 초에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마리아 산 기슭의 촌락들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곳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었고 자연적인 조건이 열악하여 인구가 희소하였는데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잇수르에 의한 사마리

61) 산헤립의 팔레스틴 원정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나는 200,150의 사람들, 젊은이와 노인, 남자와 여자, 말들, 노새들, 나귀들, 낙타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고 적은 짐승떼들을 약탈하여 끌고 왔다”(ANET, 288쪽)

62)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윗글*, 78쪽.

63) Ehud Weiss and Mordechai E. Kislev, *윗글*, 1-13쪽.

64) I. Finkelstein, *윗글*(1994), 177-181쪽.

65) *윗글*(1994), 177쪽.

66) Z. Herzog, “The Beer-Sheba Valley: From Nomadism to Monarchy,” in N. Na’aman and I. Finkelstein eds., *From Nomadism to Monarchy: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Aspects of Early Israel*,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126-167쪽.

아의 멸망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sup>67)</sup> 그리고 아스겔론에서 곡물을 필요로 하는 국제무역이 왕성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간되면서 곡물생산 기지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sup>68)</sup>

#### 4) 네게브 무역로

블레셋 도시들과 유다가 함께 관여하는 교역망 가운데 네게브 지역을 통과하는 국제무역망이 있다. 그리고 이 무역망을 통해 직접 교역하고 있는 집단은 낙타를 활용하는 아랍족이었다.

그런데 앗수르 왕 사르곤이 주전 716년 직후 아랍족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다.<sup>69)</sup> 농경지대인 사마리아에 유목민인 아랍족이 이주한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사르곤은 아랍족을 이집트 국경 부근에 이주시켜 국제무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 적이 있음을 살펴볼 때 사마리아에 대한 아랍족의 이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사르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국제무역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아랍족을 배치한 것이었다.<sup>70)</sup>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랍인들을 활용하여 육상무역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은 라기스에서 낙타뼈가 발굴된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산헤립이 라기스를 점령할 때의 광경을 그린 벽화에도 낙타가 짐을 싣고 나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sup>71)</sup>

므낫세 시대에 네게브 지역의 행정력이 강화됨에 따라 유다는 네게브를 통과하는 국제무역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므낫세는 아랍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제무역에 관심이 많았으며 실제 국제무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sup>72)</sup> 므낫세의 아랍과의 국제무역에 대한 관심은 아랍여인을 왕비로 맞이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므낫세의 왕비는 옷바 하루스의 딸 므술레

67) Avraham Faust and Ehud Weiss, *빛글*, 80쪽.

68) A. Faust, "Settlement on the Western Slopes of Samaria," in Z. H. Ehrlich and Y. Eshel, eds. *Judea and Samaria Research Studie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1994*, (Kedumim-Ariel: Eretz [Hebrew], 1995), 23-30쪽.

69) *ANET*, 286쪽.

70) I. Eph'al, *Ancient Arabs: Nomads on the Borders of the Fertile Crescent 9th-5th Centuries B.C.*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2), 105-109쪽; K. L. Younger, Jr., "The Deportations of the Israelites," *JBL* 117/2 (1998), 226-227쪽.

71) R. D. Barnett, "The Siege of Lachish," *IEJ* 8 (1958), 161-164쪽.

72) I. Finkelstein, *빛글*(1994), 177-181쪽.

멧이었다. 옷바가 갈릴리 지역 도시인지 혹은 이카바 만 주변 시막에 있는 도시(민 33: 33)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하루스리는 이름이 아랍 이름인 짐을 감안하면 왕비가 아랍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sup>73)</sup>

블레셋에도 네게브를 통과하는 아랍과의 무역이 왕성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에그론의 경우 주전 7세기에 갑자기 분향단이 많이 나타났다.<sup>74)</sup> 즉,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 제단은 주로 향단인데 이러한 향단이 주전 7세기 층에서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향료길(incense road)’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향료길’은 앗수르 제국의 핵심적인 유통망으로 제국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는 무역로였다.<sup>75)</sup> 또한 유다도 유향을 수입하고 있었다. 곡식제사인 소제에 유향을 첨가하도록 규정한 제사관련 규정(레 2: 2)을 보아도 아랍인을 통한 국제무역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다는 아랍지역으로부터 유향을 수입하여 두로에 재수출하였다(겔 27: 17).

브엘세바와 이랏을 중심한 네게브 지역에도 부유층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사용한 목재의 10%가 외지에서 수입한 고가의 목재였다.<sup>76)</sup>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에서 온 도자기들을 사용하였다.<sup>77)</sup> 이러한 것들은 아스겔론 항구를 통해 네게브 지역에 들어온 물품들인 것이다.

#### 4. 결론

비록 서로 전투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과 유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이였으며 하나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며 공생하여 왔다.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유다는 블레셋 항구도시들의 배후지역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블레셋과 유다가 비교적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던 주전 7세기에

73) J. McKay, *Religion in Judah under the Assyrians* (SBT Second Series 26; London: SCM Press, 1973), 23-24쪽.

74) S. Gitin, *빛글*(1989), 33, 46쪽.

75) S. Gitin, *빛글*(1997), 81-82, 84-85쪽.

76) N. Liphshitz and G. Biger, “Cedar of Lebanon (*Cedrus Libani*) in Israel during Antiquity,” *Israel Exploration Journal* 41 (1991), 172쪽.

77) Y. Tahareani Sussely, “Core and Periphery—A Case Study: The Arad—Beersheba Valley at the End of the Iron Age,” M. A. thesis, Tel Aviv University (Hebrew), 2002, 140-141쪽.

블레셋과 유다가 앗수르 제국의 국제무역망의 한 부분으로서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그 실태를 파악하였다.

앗수르는 지중해 연안의 국제 무역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다양하게 시행하였다. 앗수르는 국제무역센터인 카루(*karu*)를 설치하였고 앗수르 관리들인 케푸(*qapu*)를 상주시켰다. 그리고 비록 반란을 일으켜도 국제무역을 감안해서 다시 지도자로 임명하는 예외적인 조치도 시행하였고 지도자를 앗수르에서 교육시켜 왕으로 임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블레셋과 유다의 세력균형을 위해 영토의 경계를 재조정하여 지중해 연안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앗수르 제국의 경제정책 속에서 블레셋과 유다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시키고 발전시킨 것이다.

블레셋과의 광역 경제권 안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한 도시는 아스겔론과 에그론이었다. 에그론은 감람유로 유명하였고 아스겔론은 항구도시로 해상무역과 육상경제활동의 중심지였다. 아스겔론은 페니키아 지역을 비롯해서 사이프러스와 그리스 지역까지 해상무역 활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암석분석(Petrographic analysi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스겔론의 교역상품은 다양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주력상품이었다.

유다는 주로 곡물을 수출하였는데 주전 7세기에는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네게브 지역과 예루살렘 동쪽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기슭까지 개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곡물을 생산하였고 이러한 농산품은 아스겔론으로 수출되었다.

네게브 지역이 개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 행정력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역활동도 변창하게 되었다. 네게브 지역은 아랍인들에 의해 육상무역이 발달하였는데 유다와 블레셋에 향료를 제공하는 ‘향료길(*incense road*)’이 통과하는 지역이 되었다.

## 5. 참고문헌

- 정 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국제무역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5집 (1998), 25-50쪽.  
정 중호, “산헤립의 팔레스틴 원정과 히스기야,” 『신학사상』 제21집(1993 봄), 7-20쪽.  
정 중호/최 기수, “앗수르와 이집트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 『구약논단』 제4집(1998) 189-213쪽.  
Aubet, M. E., *The Phoenicians and the West: Politics, Colonies and Trade*. Trans.

- M. Turton, (Cambridge: Cambridge Univ., 1993).
- Auld, G. and Steiner, M. *Jerusalem I: From the Bronze Age to the Maccabees*. (Cambridge: Lutterworth, 1996).
- Barnett, R. D., "The Siege of Lachish," *IEJ* 8 (1958), 161-164쪽.
- Dothan, T. and Gitin, S., "Ekron," *ABD*, vol. 2, 415-422쪽.
- Eitam, D. and Shomroni, A., "Research on the Oil Industry during the Iron Age at Tel Mique: A Preliminary Report," in M. Heltzer and D. Eitam ed., *Olive Oil in Antiquity* (Haifa: University of Haifa, 1987), 37-56쪽.
- Elat, Moshe,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Neo-Assyrian Empire with Egypt," *JACS* 98 (1978), 20-34쪽.
- \_\_\_\_\_, "The Monarchy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in Ancient Israel," in Edward Lipinski ed., *State and Temple Economy in the Ancient Near East*, (Louvain: Departement Oriëntalistiek, 1979), 526-546쪽.
- Eph'al, I., *Ancient Arabs: Nomads on the Borders of the Fertile Crescent 9th-5th Centuries B.C.*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82).
- Fantalkin, A., "Re-discovering the Iron Age Fortress at Tell Qudadi in the Context of Neo-Assyrian Imperialistic Policies," *PEQ* 141, no. 3 (2009), 188-206쪽.
- Faust, A., "Settlement on the Western Slopes of Samaria," in Z. H. Ehrlich and Y. Eshel eds., *Judea and Samaria Research Studie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1994*, (Kedumim-Ariel: Eretz, 1995), 23-31쪽.
- Faust, Avraham and Weiss, Ehud, "Judah, Philistia, and the Mediterranean World: Reconstructing the Economic System of the Seventh Century B.C.E.," *BASOR* 338 (2005), 71-92쪽.
- Fensham, F. C., "An Ancient Tradition of the Fertility of Palestine," *PEQ* 98 (1966), 166-168쪽.
- Finkelstein, I., "The Archaeology of the Days of Manasseh," in M. D. Coogan, J. C. Exum and L. E. Stager eds., *Scripture and Other Artifact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69-187쪽.
- Geus, C. H. J. De., "The Material Culture of Phoenicia and Israel," *Phoenicia and The Bible* (Leuven: Uitgeverij Peeters, 1991), 11-16쪽.
- Gitin, S., "Tel Mique-Ekron: A Type Site for the Inner Coastal Plain in the Iron Age II Period," in S. Gitin and W. G. Dever eds., *Recent Excavations in Israel: Studies in Iron Age Archaeology* (Annual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49, 1989), 23-58쪽.
- \_\_\_\_\_, "The Neo-Assyrian Empire and Its Western Periphery: The Levant, with a Focus on Philistine Ekron," in S. Parpola and R. M. Whiting eds., *Assyria 1995: Proceedings of the 10th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Neo-Assyrian Text Corpus*

- Project, September 7-11, 1995*,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1997), 77-103쪽.
- Gitin, S., Dothan, T. and Naveh, J., "A Royal Dedicatory Inscription from Ekron," *IEJ* 47 (1997), 1-16쪽.
- Haak, Robert D., "The Philistines in the Prophetic Texts," in E. S. Frerichs, Jodi Magness and S. Gitin eds., *Hesed ve-emet: Studies in Honor of Ernest S. Frerichs*, (Atlanta: Scholars, 1998), 37-51쪽.
- Herzog, Z., "The Beer-Sheba Valley: From Nomadism to Monarchy," in N. Na'aman and I. Finkelstein eds., *From Nomadism to Monarchy: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Aspects of Early Israel*, (Jerusalem: Israel Exploration Society, 1994), 122-149쪽.
- King, P. J. and Stager, L. E., *Life in Biblical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 Lernau, H. and Lernau, O., "Fish Remains," in A. de Groot and D. T. Ariel eds.,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1978-1985, Vol. 3: Stratigraphical, Environmental, and Other Reports*, Qedem 33,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2), 131-148쪽.
- Lipshitz, N. and Biger, G., "Cedar of Lebanon (*Cedrus Libani*) in Israel during Antiquity," *Israel Exploration Journal* 41 (1991), 167-175쪽.
- Master, Daniel M., "Trade and politics: Ashkelon's balancing act in the seventh century B.C.E.," *BASOR* 330 (2003), 47-64쪽.
- Mienis, H. K., "Molluscs," in A. de Groot and D. T. Ariel eds. *Excavations at the City of David 1978-1985, Vol. 3: Stratigraphical, Environmental, and Other Reports*, Qedem 33,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2), 131-148쪽.
- Na'aman, Nadab, "Sennacherib's 'Letter to God' on His Campaign to Judah," *BASOR* 214 (1974), 25-39쪽.
- \_\_\_\_\_, "The Brook of Egypt and Assyrian Policy on the Board of Egypt," *Tel Aviv* 6 (1979), 68-90쪽.
- \_\_\_\_\_, "When and How Did Jerusalem Become a Great City? The Rise of Jerusalem as Judah's Premier City in the Eighth-Seventh Centuries B.C.E.," *BASOR* 347 (2007), 21-56쪽.
- Otzen, B., "Israel under the Assyrians," in M. T. Larsen ed., *Power and Propaganda: A Symposium on Ancient Empires* (Copenhagen: Akademisk Forlag, 1979), 251-261쪽.
- Saggs, H. W., "The Nimrud Letters, 1952-Part II: Relations with the West," *Iraq* 17 (1955), 126-160쪽.
- Stager, L. E., "Ashkelon and the Archaeology of Destruction: Kislef 604 BCE," *Eretz-Israel* 25 (1996), 61-74쪽.

- \_\_\_\_\_, "Farming in the Judean Desert during the Iron Age," *BASOR* 221 (1976), 145-158쪽.
- Stern, E., *Archaeology of the Land of the Bible, Vol. 2: The Assyrian,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732-332 b.c.e.)*. (New York: Doubleday, 2001).
- Tadmor, H., "Philistia Under Assyrian Rule," *BA* 29 (1966), 86-102쪽.
- Waterhouse, S. D., "The Land of Milk and Honey,"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1 (1963) 161-166쪽
- Weiss, Ehud and Kislev, Mordechai E., "Plant remains as indicators for economic activity: a case study from Iron Age Ashkelon,"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1 (2004) 1-13쪽.
- Wiseman, D. J., "A Fragmentary Inscription of Tiglath-pileser III from Nimrud," *Iraq* 18 (1956). 117-129쪽.

## 검색어

블레셋

유다

광역경제권

주전7세기

아스겔론

# A wide-area economic bloc of Philistine and Judah in the seventh century B.C.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actual trading reality of the Philistine and Judah who maintained a relatively peaceful relationship in the 7th century B.C. as a part of international trade networks of Assyrian Empire.

When viewing the geopolitical location, Judah had a special role in the hinterland of the Philistine port cities. In particular, in the 7th century B.C., Judah and Philistia formed a wide-area economic and trade bloc.

Assyria used a variety of special measures to activate its network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Mediterranean area. Assyria constructed *karu*, an international trade center, and installed *qepu*, Assyrian officials who were stationed in the area.

And so even though Philistine cities revolted, Assyria appointed the leaders again as an exceptional action for considering international trade at the area. Assyria appointed a prince who were educated in Assyria as a king. In addition, Sennacherib rearranged territorial boundaries between Judah and Philistia for the balance of power. Judah and Philistine formed and developed a wide-area economic bloc under the umbrella of the economic policies of the Assyrian empire.

In the wide-area economic bloc Ashkelon and Ekron acted important roles. Ekron was the famous center of olive oil industry and Ashkelon was the most

important port city for maritime and land trade. Ashkelon did maritime trade with areas of the Phoenician, Greece and Cyprus. Such information could be confirmed through Petrographic analysis. In the midst of Ashkelon's various trading goods, wine was the most important flagship.

Judah was the main grain exporter in the 7th century B.C.. Grain was exported to Ashkelon. In the areas of the Negev, east Jerusalem, and foothills of Samaria, grain was produced more and part of those agricultural products were exported to Ashkelon

Population of the Negev region was increased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the administrative force, which formed an environment for thriving trading activity. The incense road was crossed by the Negev region and provided incense to Judah and Philistine.

### Key Words

Philistine

Judah

wide-area economic bloc

seventh century B.C.

Ashkelon

■투고일: 2011년 6월 30일

■심사일: 2011년 7월 31일

■게제확정일: 2011년 8월 13일